

[2026] 한주간 쉽게 보는

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

Jeju News Keyword Trends

No. 107



Contents

※ 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※ 대상 기간 : 2026.08.26~2026.09.01

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▪ 정치·행정	1
▪ 경제·관광	2
▪ 지역·사회	2

2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▪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	3
▪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	7
▪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	10

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○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
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

분야	주요 키워드
정치·행정	에너지(재생에너지), 위성곤(현안), 도서관(문화), 특별자치(장관), 오름(보전)
경제·관광	관광객(외국인), 감귤(재배), 항공(노선), 추석(연휴), 바이어(해외)
지역·사회	실종(구속), 치안(범죄), 열대야(폭염), 학생(교육), 구조(사고)

※ 분석 기간 : 26.08.26.~26.09.01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○ (정치·행정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정치·행정	에너지(재생에너지)	- 제주 성장엔진 '에너지·우주·바이오' - 민간 관광사업장 첫 제로에너지 건축 - 그린수소 시설에 풍력 전기 직접 공급
	위성곤(현안)	- 위성곤-이상봉 도·제주시 첫 현안회의 - 초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임명 -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 공개
	도서관(문화)	- 도서관 생태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- 해녀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73% 급증 - 칠십리야외공연장 9월 문화행사 풍성
	특별자치(장관)	-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 채택 - 2027년 국비 2조3481억 역대 최대 - 조직개편 후속 개방형 직위 13개 확대
	오름(보전)	- 오름 가치 재조명 정책토론회 개최 -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제주 개최 - 지하수 관정 전수조사 67.2% 완료

○ (경제·관광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경제·관광	관광객(외국인)	- 관광객 900만 돌파...내국인 회복 과제 - 외국인 소비 3437억...의료관광 2배 - 도쿄 엑스포 참가 일본 관광객 유치전
	감귤(재배)	- 감귤·한라봉 과실주 우리술 최우수상 - 감귤하우스 활용 저수고 바나나 개발 - 레드향 열과 방지 생육관리 기준 마련
	항공(노선)	- 가을 연휴 김포~제주 특별기 20편 - 제주항공 중국 노선 500만명 돌파 -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 신화월드 개막
	추석(연휴)	- 추석 겨냥 전국순회 제주관광 홍보 - 한은, 추석 특별자금 50억원 지원 - 전국체전·연휴 대비 관광 안전 강화
	바이어(해외)	- 11개국 바이어 외국인환자 유치 페어 - 제주 농식품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- 식품·화장품 동남아 시장 공략 확대

○ (지역·사회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지역·사회	실종(구속)	- '허위 종결' 경장 구속 송치 -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 추가 발견 - 장미란씨 사인 규명 수사 본격화
	치안(범죄)	- 자치경찰 협력단 치안 사각지대 점검 - 경찰 지휘부 개편...제주청장 교체 - 중학생 교사 불법촬영·합성물 입건
	열대야(폭염)	- 제주 열대야 50일 돌파...9월도 지속 - 서귀포 폭염 14일 연속 역대 최장 - 태풍 간접영향 폭우에도 열대야 지속
	학생(교육)	- 전국 기능·발명대회 제주 학생 두각 - 체육고 신설 검토 TF 구성 - 4·3 유족 후손 장학금 2800만원
	구조(사고)	- 강정포구 어선 전복 선장 무사 구조 - 항포구·해상 잇단 사망사고 발생 - 페그물 걸린 바다거북 잇단 구조

2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- 2026년 8월 26일~9월 1일 기간, 정치·행정, 경제·관광, 지역·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695건임
 - 정치·행정 분야 168건, 경제·관광 182건, 지역·사회 345건임
 - * 대상 언론사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- 정치·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에너지(재생 에너지), 위성곤(현안), 도서관(문화), 특별자치(장관), 오름(보전) 등으로 나타남



[그림 1] 정치·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○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

정치·행정	에너지 (재생에너지)	- 제주 성장엔진 '에너지·우주·바이오' ·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'5국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'에 따른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으로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과 소형위성시스템, 청정바이오 웰니스가 공식 확정됨. · 제주권 슬로건은 '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'로 정해졌으며, 지방주도성장과 대규모 투자의 중심축으로서 정부 7대 패키지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정치·행정	에너지 (재생에너지)	- 민간 관광사업장 첫 제로에너지 건축 ·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 관광단지에 ㈜아난티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휴양콘도미니엄 44동에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입돼 도내 민간 관광개발사업장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이 적용됨. · 제로에너지 건축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건축물로, 제주도는 용적률과 채광 높이를 최대 15% 완화하고 취득세 20%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함. - 그린수소 시설에 풍력 전기 직접 공급 ·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연안풍력발전(3MW)이 생산한 전기를 인근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곧바로 공급하는 체계가 도내 첫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구축돼 재생에너지 전력의 '직접 조달'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됨. · 상업 운영 중인 그린수소 시설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직접 공급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, 제주도는 이를 통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향후 청정수소 인증에도 도전할 계획임.
	위성곤 (현안)	- 위성곤-이상봉 도·제주시 첫 현안회의 · 제주도가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이상봉 제주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시와 현안회의를 열어 제주시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음. · 위성곤 지사는 민원 신속 대응과 현장 행정 강화를 주문하며 도와 협의가 필요한 권한·예산 문제를 적극 제기해 조정해 나가자고 밝히는 등 도와 행정시간 협력으로 시민 응답성을 높이는 행정에 공감대를 형성함. - 초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임명 · 제주도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후·경제 정책을 이끌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27일 최종 임명했으며, 신임 부지사는 행정고시 40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환경부의 대표적 정책 기획통으로 꼽힘. · 앞서 26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의 환경·경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과 함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이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짐. -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 공개 ·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추진하는 96개 실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행계획 상황판이 31일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돼 도민 누구나 과제별 추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됨. · 상황판은 96개 전체 과제의 추진 현황과 전체 추진율, 6대 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,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등으로 구성됐으며, 도정 핵심 과제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정치·행정	도서관(문화)	- 도서관 생태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· 박지은 도의원이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'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'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, 제주 도서관이 시설·장서 등 양적으로는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도민 이용률은 하위권에 머문다는 진단이 나옴. · 발제를 맡은 이용훈 한국도서관사연구회장은 도서관 서비스 연결 강화와 이용 확대 등 4단계 방안을 제시하며 한라도서관의 중앙본관화 등 '하나의 조직'으로의 개편 필요성과 이용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함. - 해녀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73% 급증 · 제주해녀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지난 23일 기준 올해 총 4만3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3% 늘어나는 등 제주 해녀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 · 같은 기간 국내 포함 전체 관람객은 11만1587명으로 집계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으며, 제주해녀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외국인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져 박물관의 위상이 한층 부각됨. - 칠십리아외공연장 9월 문화행사 풍성 ·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단장한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인근 칠십리아외공연장에서 9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음악 공연과 국가유산 행사, 상시 버스킹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릴 예정임. · 서귀포시는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인 칠십리아외공연장을 지역 문화·체육 활동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,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됨.
	특별자치(장관)	-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 채택 · 제주·세종·강원·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. ·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5극 중심으로 추진돼 3특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, 4개 시도는 규제혁신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별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함. - 2027년 국비 2조3481억 역대 최대 ·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관련 국비 2조3481억원이 반영돼 올해 2조2342억원보다 1139억원(5.1%)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감. · 전국(장애인)체전 운영과 시설 개보수 사업이 157억원 감소하는 등 일부 감액도 있어, 제주도는 반영액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임. - 조직개편 후속 개방형 직위 13개 확대 ·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에 맞춘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전임 도정에서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 등 일부 조직이 사라지고 제2공항담당관과 혁신관리담당관, AI혁신추진단이 새로 등장하는 등 조직·팀명이 확정됨. · 이른바 '어쩌다 공무원'으로 불리는 개방형 직위도 5급 13개로 확대돼 기본

정치·행정	특별자치 (장관)	사회정책팀장 등 사무관급 공모가 시작됐으며, 외부 전문가 수혈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조치로 풀이됨.
	오름 (보전)	- 오름 가치 재조명 정책토론회 개최 ·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'제주 오름의 가치 재조명과 지속가능한 보전'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오름 보전·관리 체계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함. · 토론회에서는 오름 초지의 생태문화적 가치에서부터 오름 지명의 어원과 해독에 이르기까지 오름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재조명하고,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 -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제주 개최 ·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르 국제협약을 기념해 지정된 세계기념일인 '2026년 세계 습지의 날' 기념식이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'습지 보전,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'을 주제로 공연·영화 상영·전시와 함께 개최됨. ·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·치료를 마쳤거나 인공부화에 성공한 푸른·붉은·매부리바다거북 12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등 해양쓰레기와 폐어구, 서식지 훼손 등으로 위협받는 해양생물의 보전 활동도 함께 펼침. - 지하수 관정 전수조사 67.2% 완료 · 제주도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해 도내 지하수 관정 5664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용실태조사가 7월 말 기준 3804공(67.2%)까지 완료됐으며, 오는 11월 마무리를 목표로 함. ·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량계·단말기 이상 75건이 확인돼 조치가 완료됐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65건은 시설 관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등 관정의 실제 이용현황과 시설 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음.

경제·관광	관광객 (외국인)	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'제13회 JTB 해외여행 엑스포'에 참가해 주요 관광상품과 제주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는 공동세일즈를 펼침. ·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약 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4% 증가했으며, 일본 현지 여행업체 대상 B2B 세미나와 상담을 통해 상품 판매 확대를 모색하는 등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됨.
	감귤 (재배)	- 감귤·한라봉 과실주 우리술 최우수상 ·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'202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'에서 제주산 감귤과 한라봉, 감귤꽃꿀로 빚은 (주)시트러스의 '마셔블랑 스프링'이 과실주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됨. · 서귀포 신레리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이 포도 위주의 과실주 시장에서 제주 감귤의 저력을 입증한 결과로, 제주 농산물이 가공 원료로서 지닌 가능성을 보여주며 감귤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 - 감귤하우스 활용 저수고 바나나 개발 ·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기존 감귤하우스를 활용해 재배할 수 있도록 나무 높이를 낮춘 '제주형 저수고 바나나'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며 2027년 품종 출원을 목표로 시범재배를 진행하고 있음. · 보통 4~5m까지 자라는 바나나를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감귤 재배용 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,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는 연 1회 생산기술 개발도 병행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- 레드향 열과 방지 생육관리 기준 마련 ·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해마다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반복되는 레드향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농가에서 축적한 환경·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생육단계별 온도·수분 관리 기준을 마련함. · 5~6월 주간 24~26℃, 7~8월 야간 25~26.4℃ 등 적정 범위를 도출해 제주형 스마트제어·통합관리시스템 '제빛나'에 오는 11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으로, 경험에 의존하던 재배관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.
	항공 (노선)	- 가을 연휴 김포~제주 특별기 20편 · 대한항공이 추석(9월 24~27일)과 개천절(10월 3~5일), 한글날(10월 9~11일) 연휴를 맞아 김포발 제주행 노선에 보잉 737-8 기종의 마일리지 특별기를 총 20편, 약 3160석 규모로 운영함. · 9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제주-김포 노선에 부정기편 46왕복도 추가 편성해 연휴 기간 제주행 수요에 대응하고 보너스 항공권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가을 성수기 항공 좌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. - 제주항공 중국 노선 500만명 돌파 · 제주항공이 2012년 6월 인천~칭다오 노선 취항 이후 중국 노선 누적 탑승객 약 518만명을 기록하며 500만명을 돌파했으며, 이는 전체 LCC 중국 노선 누적 탑승객 약 1538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함. · 올해 7월까지 중국 노선 이용객은 42만7800명으로 2019년 수준을 웃돌았으며, 제주-청두·충칭 노선의 연내 증편과 운항 준비 등 제주를 기점으로 한 중국 노선망 확대도 추진됨. -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 신화월드 개막

경제·관광	항공 (노선)	· 드론 1000대의 군무와 실물 크기 도심항공교통(UAM) 기체 전시, 17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 등을 아우르는 '2026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'가 27~28일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됨. · 제주의 소형위성시스템이 5극3특 성장엔진으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위성곤 지사는 행사장에서 우주기업·연구기관 간담회를 열어 위성 제작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 우주산업 집적화 방안을 논의함.
	추석 (연휴)	- 추석 겨냥 전국순회 제주관광 홍보 · 제주도관광협회가 추석과 10월 개천절·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홍대입구역 인근,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, 경주 향리단길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현장밀착 로드홍보를 추진함. ·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마술·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정확한 정보 전달로 안전한 제주를 알리는 등 연휴에 형성되는 가을 여행수요 선점에 나섬. - 한은, 추석 특별자금 50억원 지원 ·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등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총 50억원(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0억원)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함. ·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로 중·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 명절을 앞둔 영세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함. - 전국체전·연휴 대비 관광 안전 강화 · 서귀포시가 전국체전·전국장애인체전과 추석 연휴에 대비해 안전 관광 안내와 관광지·시설물 관리 강화, 올레길 탐방객 지원체계 확대 등 관광 분야 안전 관리와 관광 안내 서비스 강화에 나섬. · 서귀포시관광협회의와 협력해 관내 관광숙박업, 테마파크업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관광 안내를 실시하는 등 대규모 행사와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수용태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.
	바이어 (해외)	- 11개국 바이어 외국인환자 유치 페어 · 제주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제주 일원에서 '2026년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'를 개최해 도내 의료기관과 11개국 해외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여 외국인 환자 유치 상담을 진행함. ·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수도권 대상 공모에서 제주가 개최지로 선정돼 마련된 행사로, 지난해 외국인환자 4만7028명을 유치해 전국 4위를 기록한 제주의 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. - 제주 농식품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·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글로벌 B2B 플랫폼 트릿지를 활용한 '푸드테크 글로벌플랫폼 협력 제주농식품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'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과 28일 이틀간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함. · 상담회에서는 도내 농식품 기업 7개사가 베트남·폴란드 등 4개사 바이어와 일대일 대면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, 제주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지역·사회	실종 (구속)	-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 추가 발견 · 제주경찰청이 A경장이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·해제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이 추가로 발견돼 실제 허위 종결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섬. ·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의 21%인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됐고, 60대 남성 실종 신고는 상급자 결재를 거쳐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. - 장미란씨 사인 규명 수사 본격화 ·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DNA형 분석 결과 장미란씨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 27일 한림읍 야자수 밭에서 사인 규명을 위한 현장 재연 실험을 실시했으며, 실종 당일인 5월 12~13일 새벽 사이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. · 최초 실종신고 접수 당시 경찰의 첫 수색이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난 데다 사건 수사 중 112신고 녹취 파일마저 보존 기한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, 현장 야자수 줄기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고 유서는 나오지 않음.
	치안 (범죄)	- 자치경찰 협력단 치안 사각지대 점검 ·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1일 자치경찰 협력단과 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주요 관광지와 생활권의 순찰 강화,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함. · 워크숍에서는 생활안전·여성청소년·교통 3개 분과별로 도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낀 안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책이 모색됨. - 경찰 지휘부 개편...제주청장 교체 · 경찰청이 1일 밤 단행한 치안정감·치안감 인사에서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내정 20여일 만에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국제치안협력 국장으로 이동하고, 신임 청장에는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됨. · 전임 서장 등 지휘라인이 대기발령돼 공백이 발생한 제주서부경찰서에는 박철균 총경이 제18대 서장으로 1일 취임하는 등 제주 치안 지휘부가 잇따라 재정비되면서 흔들린 지역 치안 체계와 신뢰의 회복이 과제로 부상함. - 중학생 교사 불법촬영·합성물 입건 ·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 7월 14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신체 등을 무단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의 합성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도내 중학생 A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임. ·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으며,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 규모 파악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.
	열대야 (폭염)	- 제주 열대야 50일 돌파...9월도 지속 · 올해 제주 북부와 남부의 열대야 일수가 50일을 넘어선 가운데 8월 31일 밤에도 제주 27.4도, 서귀포 27.9도 등 도 전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음. · 제주지방은 9월 첫 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소나기 속에 폭

지역·사회	열대야 (폭염)	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으며, 제주에서 열대야가 50일 이상 발생한 것은 3년 연속으로 여름철 밤더위의 장기화 추세가 뚜렷해짐. - 서귀포 폭염 14일 연속 역대 최장 · 올여름 제주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며 서귀포에서는 폭염이 14일 연속 계속돼 최근 10년 사이 제주지역에서 관측된 가장 긴 연속 폭염 기록을 세우는 등 7~8월 무더위 기상 기록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임. · 성산의 열대야 일수는 43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, 이어진 역대급 폭염에 제주시 병문천 복개구간 등 도심 곳곳에서는 화단에 심어진 가로수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말라 죽는 고사 현상까지 나타남. - 태풍 간접영향 폭우에도 열대야 지속 · 제18호 태풍 '사우델'의 간접 영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밤사이 한라산 진달래밭 171mm 등 산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으나 해안 전역의 열대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됨. · 비가 이어진 뒤에도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지수가 '매우 높음'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9월 들어서도 무더위가 이어져 외출 시 자외선 차단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.
	학생 (교육)	- 전국 기능·발명대회 제주 학생 두각 · 제주 직업계고 학생 33명이 인천에서 열린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, 장려상 4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직업계고 기능 교육의 성과를 입증함. · 제주중앙고 김민준 학생도 지난달 26일 제19회 전국 학생 창업·발명 경진대회에서 동작 에너지 기반 무전원 원심 회전식 스마트 우산 건조 시스템을 발표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들의 전국 단위 성과가 잇따름. - 체육고 신설 검토 TF 구성 · 고의숙 교육감이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체육고등학교 신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육계 인사 13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검토에 나서면서 도내 체육고 신설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짐. · 학생 수요와 학교 설립 여건, 장기적인 운영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올해 말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, 실제 신설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옴. - 4·3 유족 후손 장학금 2800만원 · 제주4·3평화재단이 지난달 31일 '제12회 제주4·3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'을 열어 4·3유족 후손 대학생·고교생 등 올해 선발된 장학생 23명에게 총 2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함. ·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창욱 전 4·3중앙위원이 덕산장학금 1억원을 기탁하는 기탁식도 함께 진행돼 4·3 희생자 유족 후손의 학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학 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됨.
	구조 (사고)	- 강정포구 어선 전복 선장 무사 구조 · 지난달 25일 오후 7시 42분께 서귀포시 강정포구 남쪽 약 550m 해상에서 조업을 준비하던 연안복합어선이 전복됐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전복된 선체 위에 올라탄 50대 선장이 인근 어선에 의해 약 9분 만에 구조됨.

지역·사회	구조 (사고)	· 선장이 조업 준비 중 의자에서 미끄러지며 조타기를 놓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복 선박은 강정포구로 예인됐으며, 인명피해 없이 구조가 마무리됐지만 해상 조업 중 각별한 안전 주의가 요구됨. - 항포구·해상 잇단 사망사고 발생 · 지난달 28일 밤 서귀포항 7부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(SUV)가 항내 구조물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4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. · 30일에는 가파도 인근 바다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지는 등 항포구와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안전 주의가 요구됨. - 폐그물 걸린 바다거북 잇단 구조 ·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사계 체육공원 앞 1km 해상에서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을 발견했다는 선박의 신고에 해경 구조대원이 직접 바다에 입수해 몸에 뒤엉킨 폐그물을 절단하고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냄. · 29일에는 성산읍 신양리 섭지해수욕장 인근에서 폐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던 푸른바다거북이 시민의 신고와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는 등 폐어구에 얽힌 해양생물 구조가 이어짐.
-------	------------	---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